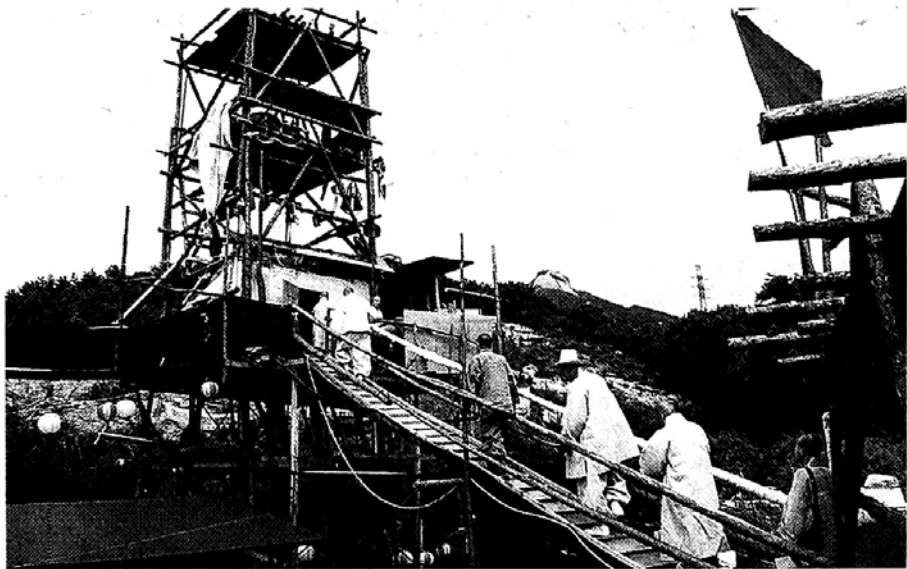


긴장 감도는 송추 철마선원

‘건물 철거’ 가처분 선고연기...12일 보강심리키로



◇조계종 호법부 스님들이 4일 송추 철마선원을 방문, 망루에 올라 북한산 파괴현장을 둘러보았다.

북한산 관동도로 공사가 진행되자 이에 반대에 지난해 11월 20일부터 천막농성장으로 꾸려졌던 의정부 송추 철마선원. 4일 오후, 태풍 라마순의 북상에 대비한 건물 점점으로 분주한 가운데 철마선원에는 긴장감이 흘렀다. 서울고속도로(주)가 제기한 ‘건축물 철거 및 토지인도 가처분 신청’을 5일 의정부지원이 받아들일 경우, 철마선원에 대한 공권력 투입과 강제 철거가 예상됐기 때문이다. 더욱이 월드컵 기간동안 공사를 중

‘북한산 지키겠다’ 스님들 기도정진 계속 공사 차기정권 이양 등 요구 청와대 전달

지하겠다는 건교부의 약속이 효력을 잃게 되면서 언제 공사가 재개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오후 늦게 5일로 예정됐던 가처분 신청에 대한 선고가 12일 보강심리를 여는 쪽으로 확정되자, 철마선원

을 지키고 있던 환경수호단원들 사이에서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왔지만 북한산을 지키겠다는 결연한 의지는 전혀 흔들림이 없었다. 지난 6월 26일 ‘북한산 수호 범불교대회’에서 발족된 환경수호단은 이날부터

20~30명씩 조를 편성해 철마로 철마선원을 지켜왔다.

6·26 범불교대회에서 열서를 쓰며 수행환경을 보존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인 회통사의 종호·성업스님 등 비구니 스님들은 수경스님과 함께 매일같이 철마선원 주변에 설치된 망루와 철책을 살피고, 이따금씩 찾아오는 방문객들에게 자연 및 수행환경의 소중함을 열심히 설명한다. 북한산 수호를 발원하는 기도정진은 가장 중요한 일이다.

조계종 호법부장 증지스님은 4일 철마선원을 방문, ‘의정부지원이 가처분 신청에 대해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종단이 송추 현장을 외호하겠다’는 총무원장 정대스님의 굳은 의지를 전달하면서 “환경은 불교계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철마선원에 대해 종단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조계종은 △12월 대통령 선거까지 북한산 관동도로 공사를 연기할 것 △다음 정권으로 이 문제를 이양할 것 △노선검토위를 구성할 것 등을 요구하는 공문을 5일 청와대에 전달했다.

철마선원장 수경스님은 “부처님은 어떤 경우에도 살아있는 생명을 지키려 한다고 가르치셨다”며 “환경수호를 위한 철마선원 지키기에 모든 불자들이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승가대 학인스님들 훈훈한 보살행

젓병과 기저귀 든 스님을 보셨습니까?

중앙승가대 사회과학연구소 회장 해인스님(사회복지학과 3년)과 혜법스님(승가대신문 전 편집장)은 3일 오후 경기도 김포 양천면의 한 외국인 노동자가 사는 집을 찾았다. 일주일전 제왕절개수술로 아이를 출산했으나 병원비는 물론 산후조리마저 할 수 없는 딱한 사정에 놓였다는 방글라데시인 사두 씨(21)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도움을 주기 위해 나섰다.

두 스님은 학교 교수와 동문, 학인들에게 모금한 100여만원의 성금과 함께 젓병과 기저귀, 유아복 등을 사두씨에게 내놓았다. 그것도 모자랐던지 두 스님은 중앙승가대 합창단원들에게 연락해 산후조리를 마칠 때까지 돌아가면서 산모를 돌봐 줄 것을 요청했다.

“처음에는 성금만 전달하고 곧바로 나오려고 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살 수 없을 것 같은 3평짜리 지하방에서 아이와 함께 누워있는 산모를 보고 있자니 눈물이 나더군요. 도저히 그냥 나올 수가 없었어요. 마음이라도 따뜻하게 해주어야겠다는 생각에서 6시간동안 함께 있었습니.”

김포 지역에는 대략 5천여 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모여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거의 대부분 불법 체류자여서 드러내 놓고 병원도 갈 수 없는 처지다. 이들에게 인권은 먼 나라 얘기일 뿐, 그날그날 사는 것조차 힘겹다.

처음엔 경제계를 늦추지 않던 사두씨도 시간이 지나면서 스님들이 정말로 자신을 돕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동안 한국에서 겪은 일들을 생각하면 누구도 믿을 수 없었던 사두씨였다.

외국인노동자 산모에 성금·유아용품 합창단원들 번갈아 산후조리 돕기도



“공부도 좋지만 소의계종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학생회 차원에서 어려운 처지의 외국인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 봐야겠습니다. 불법 체류자이긴 하지만 그들의 삶 역시 소중하지요.”

두 스님은 앞으로 외국인 노동자 돕기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영우 기자

우수자원봉사자 시상식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사장 정대)은 2일 복지재단 2층 법당에서 우수자원봉사자 시상식을 봉행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지난 4월부터 두 달간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부처

님오신날을 맞아 주최한 자원봉사한 마음축제에서 적극적인 자원봉사활동을 펼친 불교계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13곳, 개인 6명이 표창장을 받았다. 시상식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신행활동 부문=강릉 자비봉사회, 충북해능보육원 소속 불교신행

회, 여수 보현행원회, 부산불교신도회복지분과 △운영지원 부문=함림사반아보사단, 대한적십자사 거제시현봉사회, 김포 흥린회, 부산진구불교자원봉사회, 통도사 금강봉사회, 서울 보리수회, 문경시문정자불자연합회 △전문기술활동 부문=서울 사랑나눔수지침봉사단, 서울 불교자연봉사연합회 수지침봉사단 △개인활동 부문=충북해능보육원 허은 씨, 서울 은평노인종합복지관 석문숙, 유정환 씨, 영등포보현의 집 윤홍자, 김춘자 씨. 김철우 기자

민간단체 대북사업 차질 남북협력기금 지원 연기

포한 점은 간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진각스님은 6월 25일 성명서를 발표한 대전지역 신도단체대표 3명을 대전 둔산경찰서에 출몰함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고발했다. 또 마곡사 김철현 사무장도 “신도단체들의 주장은 사실에 기초한 것이 없으므로 본사에서 논란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앞으로 모든 일은 종법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갑사주지 장곡스님은 4일 ‘교계의 모든 분께 알립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발표문을 통해 “대전지역 신도단체를 뒤에서 배후조종하지 않았으며, 선거전에 ‘선거결과에 승복하고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도 선거후 종회 고발돼 작년에 공주지청으로부터 무혐의 처리된 사건과 호법부 조사를 끝마친 내용을 버젓이 비위사실로 배

서해교전 이후 한반도에 냉기류가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통일부가 2일 발표한 예정이었던 남북협력기금 민간단체 대북지원이 전면 연기됐다. 이에 따라 한국JTS와 평화통일불교협회의 남북협력기금 민간단체 대북지원사업(본지 377호 1면 참조)도 다소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또 교계 2개 단체가 통일부에 신청한 남북협력기금 민간단체지원금 책정도 여론의 항배에 따라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원우 기자

신도단체들과 마찰 마곡사 주지문제

12일 중앙선관위 심의 매듭

마곡사 주지 임명을 둘러싼 문제가 12일 열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각스님 주지후보 이의신청 심의에서 결정 날 것으로 보인다. (본지 376호 23면 기사참조)

조계종의 한 관계자는 “총무원 호법부 조사가 진행 중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심의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진각스님의 마곡사 주지 임명을 반

대한 대전지역 신도단체 대표들은 3일 조계종 총무원사서실에 “진각스님의 마곡사 주지 임명은 취소하고 재선거를 실시하여 새 지도자를 선출케 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와 함께 첨부서류로 ‘김병관과 현문스님의 전화통화 녹취록’, ‘마곡사 보고서’, ‘김경명 황성원스님 신도성의 대화 녹취록’, ‘동학사 검수 보고서’ 등 마곡사와 현주지 진하스님, 주지후보 진각스님의 비위내용이 담긴 증거자료를 제출했다.

신도대표인 새재종 총대명 명에 교수는 “진각, 장곡스님을 제외하고 재선거를 실시, 훌륭한 스님을 모시는 것이 단체들의 뜻”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진각스님은 “장곡스님의 백제불교회관 산하 신도단체들이 제기한 날조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현 집행부에서 어떠한 결정을 하더라도 따르겠다”며 “다만 상대에 의해 고발돼 작년에 공주지청으로부터 무혐의 처리된 사건과 호법부 조사를 끝마친 내용을 버젓이 비위사실로 배



월남전 참전용사 출신의 한 불자가 고엽제 후유증으로 고생하면서도 평생동안

라며 30년간 간담일을 해서 모은 2천만원에 기부한 뒤 5월 30일 세상을 떠났다. 2년 전 육종암 판정을 받고 불교에 귀의한 이씨는 불교병원을 짓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몸이 아프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데 쓰

고엽제 후유증 이영춘씨 평생모은돈 “좋은일에 써달라” 동국대 기증·별세

폰분이 모아왔던 돈을 불교종립대에 기부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3일 동국대에 따르면 월남전 참전용사 이영춘(60·사진) 불자는 고엽제 후유증으로 투병 중이던 4월 22일 동국대에 “좋은 일에 써달

는 게 보람이 있을 것 같다. 병원 건립에 보태달라”며 동국대에 돈을 기증했다. 이 씨의 49재는 과천 청계산 정토사에서 봉행했으며, 유해는 4일 대전국립묘지에 안장됐다. 박병영 기자

“모시는 사찰마다 신비스러운 영험이 일어나고 있는”

사천왕 병풍의신비(神秘)한위신력!

◎ 조성방법

먼저 훼손되지 않고 영구적으로 모실 수 있도록 병풍 전체를 고급무늬 목재와 황동판을 사용해서 색채도 화려하고 정교하게 조성 하였습니다. 직접보시된 환희심이 저절로 일어나실 정도이며 일차로 이번호에 300불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병풍 뒷면에는 법기(法契)와 생기(生契)가 계속적으로 방출되고 있는 본위의 비법(秘法)인 황동판 팔괘다리와 황동판 팔괘불탑다리를 4쪽 모두 부착시켰습니다. 그 결과 사천왕 병풍 자체에서 나오는 법기와 합일(合一)되어 사찰 내 사방 50m 이내에는 강안법기와 법력으로 충만되어 주위의 사막인 기운이 소멸되어지고 있으며, 사찰 내를 신성스러운 법력이 항상 감싸고 있게 되므로서 사천왕 병풍을 모시는 사찰마다 신비스러운 위신력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현재 일어나고 있는 신비한 위신력의 현상

- (1) 매 법외마다 신도들이 50여명 정도 밖에 안나오는 사찰의 경우에서 사천왕 병풍을 모시고 난뒤부터 신기하게도 동참하는 신도들이 점점 늘어나 지금은 법외에 80여명 이상의 신도가 나오고 있고 어느 때는 100여명 이상의 신도들이 동참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였습니다.
- (2) 뜻하지 않은 큰 금액의 보시금을 내는 신도가 생기는가 하면 불합의의 보시금도 배로 늘어나 사찰의 어려운 형편이 점점 나아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 (3) 스님들께서 불사를 이룰 수 있는 계기가 우연이 마련되어지고 모든 일이 뜻한 바대로 순순히 풀려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 상가 사례는 그동안 사천왕 병풍을 모신 사찰의 스님들과 대외하는 중에서도 알게 된 현상들을 종합해 보면 이것이지만, 분명한 것은 이 모든 현상들이 사천왕 병풍에서 나오는 신비스러운 위신력의 작용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며 이제 그 위력이 아니랄까 봐 알게 모르게 발휘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 불자들에게서도 뜻을 모아 사천왕 병풍을 모신들이 다니시는 사찰에 시주(施主) 이는 마음을 내어보십시오. 이보다 더 큰 공덕도 그리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야간 : 031)706-3060

성지관음회

하기책자 3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중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중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해천법사

책자 내용

- 1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 2 생활중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 3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 4 팔괘의 상점에 대한 설명
- 5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 6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 7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 8 생활중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중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 9 팔괘다리와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중수의 중요성
글쓴이 : 해천법사

- 1 중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2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 3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 4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 5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 6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 7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영가들이 확실하게 전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예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단락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자 내용

- 1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2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3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 4 태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5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 6 조상대대 전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 7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 8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 9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 10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11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 12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삼담문의 및 책자 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야간 : 031)706-3060